문화광장

따뜻한 남쪽나라의 어두운 그림자

김 준 기
미술평론가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한반도의 겨울철에 오키나와 여행은 '따뜻한 남쪽나라의 이상향' 그 자체다. 삼별초가 진도와 제주도에서 최후의 항전을 마치고 떠나간 남쪽 나라, 홍길동이 향한 율도국의 그 남쪽 나라다.

아직 정사로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학계의 연구 성과는 한반도와 오키나와의 연결을 점점 더 구체화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키나와는 이토 히로부미의 설계 아래 일본에 병합되기 전까지 별도의 왕국이었으나, 근대 제국주의 질서 아래에서 국가 소멸을 맞이했다. 조선 왕국 역시 류큐 왕국과 같은 길을 걸었다. 한반도는 목숨을 건 독립운동과 항일 전쟁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쟁취했지만, 오키나와는 미국령에서 일본 직할로 바뀐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으로 독립국가를 되살리지 못했다.

20세기를 거치며 조선과 류큐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렸지만, 역사 속 두 나라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긴밀하다. 오키나와 우라소에성 일대에서 출토된 '고려기와장(高麗瓦匠)' 명문 기와에는 '계유년 고려와장(癸酉年 高麗瓦匠)'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를 1153년(고려 의종 7년)으로 비정하고 삼별초의 이동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견해가 학계의 정설에 가깝다. 이를 시작으로 자리 잡은 류큐의 문명은 1429년 류큐 왕국(琉球王國)의 개국으로 이어진다. 1609년 일본 사쓰마번의 침입으로 왕국은 쇠락의 길을 걸었고,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적 설계 아래 메이지 국가의 중앙집권과 제국주의 전략 속에서 '류큐처분'이 단행돼 일제에 병합됐다.

류큐 병합을 통해 일본은 근대적인 국제 질서의 방식으로 타국을 집어삼킨 자국의 최초 사례를 만들었고 조선이 그 뒤를 이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것은 류큐의 전례가 조선에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중국 제국에서 일본 제국으로, 일본 제국에서 미국 제국으로 옮겨온 근현대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나라를 잃고 수탈과 착취 속에 20세기를 살아온 오키나와와 한반도 사람들의 고난사는 동병상련의 비극이다. 따뜻한 남쪽나라 오키나와 여행은 빛을 찾는 여행으로서의 관광(觀光)이 아니라, 역사의 유훈을 배우는 다크투어로서의 의미가 각별하게 다가온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 반복되는 것이 역사다. 근대기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희생자가 된 오키나와와 한반도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불의 고리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최전선, 한반도-제주-오키나와-타이완으로 이어지는 불의 고리가 그것이다. 광활한 해양 강역을 가진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는 타이완과 맞붙어 있다. 오키나와 본섬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미군기지들을 지나며 겨울 여행을 마친 지금, 따뜻한 남쪽나라의 이상향 위에 어른거리는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우크라이나,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이어 타이완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50년의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그저 우려에 그치기를.

사설

만다린 무관세 수입, 단계별 공동대응 필요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의 무관세 수입이 본격화된다. 제주산 만감류와의 경쟁이 불가피해 농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감귤농가의 생존기반을 안정시키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농정간담회가 열렸다. (사)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10일 문대림 국회의원을 초청해 농정간담회를 개최하고 만다린 수입 확대에 따른 농업여건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만다린 수입 확대 국면에서 제주감귤이 직면할 수 있는 가격·수급 불안 가능성과 농가 경영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만다린이 무관세로 수입되더라도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조기출하를 자제하고 선별된 고품질의 만감류가 출하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 만다린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관리와 검역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병해충 유입과 저품질 수입 물량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와 검역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단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시기별로 고품질의 만감류를 분산 출하해 소비촉진을 장려해야 한다. 수급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협은 직접 만감류를 매입해 공급을 조절하는 매취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고품질 생산·유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수입보장보험 제도와 검역기준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스마트농업, 전방위적인 투자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 딸기의 인기가 드높다. 물이 귀한 현지에서 한국 기술로 재배한 상품들이다. 사막은 낮 최고 기온이 50℃를 넘나들 뿐만 아니라 물이 귀해 말 그대로 불모지였다. 여러 선진국들이 농사에 도전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냉방비와 용수부족을 해결하지 못해서다. 한국의 한 기업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컨테이너형으로 외부 열기를 차단하고, 물 소비를 90% 이상 줄이는 순환식 재배농법으로 실마리를 풀었다.

수많은 나라들이 스마트농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와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생산성 향상, 신품종·전략작목 육성, 물 사용량 저감에도 효과가 크다. 사우디처럼 사막 국가는 물론이고 도심의 자투리 공간에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지자체들의 관심도 크다. 세계 각국이 스마트농업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제주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올해 총 315억원을 투입해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농업 디지털 생태계 고도화와 스마트농업 실용 기술의 현장 확산,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보급 등에 나선다.

전 방위적인 투자·지원 없이는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제주농업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관련 인력 육성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수뇌부의 혜안과 뚝심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열린마당

으라차차 가슴을 활짝 펴고

고 경 아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으라차차 가슴을 활짝 펴고.' 밴드 럼블피쉬의 '으랏찻차'라는 노래 가사 중 한 대목이다.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살자는 노래인데, 오늘 같은 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오늘은 2026년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첫날이다. 역도선수들이 역기를 들어 올리듯 각자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길 바라며 긍정적이고 밝은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해봤다.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빠르고 진지하게 진행된다. 그만큼 실직은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다.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은 매월 실시되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직원이 전화로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다. 이번 1월 22일 시작되는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향상하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실직이나 기타 이유로 조건부 수급자가 된 사람들이 혹시나 마주하고 있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취업으로 삶의 긍정적·적극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본다.

참가자들은 시간에 맞춰 오길 바란다. 과정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수료를 인정하고 생계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계획하고 와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부디 수강자 모두가 수료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 안전지수 상향 위한 안간힘 무색

6개 분야 중 절반이 최하위

○…12일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발표에서 제주가 6개 분야 중 3개 분야(범죄, 생활 안전, 자살)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면서 그간 제주도의 노력이 무색.

제주도는 2024년의 경우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균 2등급을 목표로 삼아 15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고, 지난해엔 취약 분야인 범죄·생활 안전 분야 1개 등급 향상을 목표로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

도 관계자는 "생활 안전 분야 응급 처치 교육 등 많은 노력을 했고 범죄 분야도 상대 평가로는 5등급이지만 수치가 점점 개선되고 있어서 2026년 결과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며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정부 경제전략 맞춤 정책 추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열린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발맞춰 제주형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도민 체감형 정책을 확산하겠다고 강조.

제주도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케이(K)-패스'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중소 건설업체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신용보증 지원 등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도정 사업을 본격 추진.

오 지사는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그린수소,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며 "각 실·국은 하반기 추경과 2027년 예산 편성, 국비 신청 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 오소범기자

부 고

강태인 아버지 진주강공 규진(선진인쇄사 사장(대표) · 향년 69세)께서 서기 2026년 1월 12일 11시 49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6년 1월 14일(수요일)
▶발 인 : 2026년 1월 15일(목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 양지공원 → 천왕사

배우자 손 정 순
아 들 강 태 인
딸 강 경 연
사 위 김 성 엽

※ 연락처
(배우자) 손정순 010-3691-5585
(아 들) 강태인 010-5075-5777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비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